

산상 변모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TRANSFIGURATION SUNDAY

주후 2021년 2월 14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새 54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7 번 시편(Psalm) 16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 (Mark) 92-9	금종각 집사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14) – 들음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By Listening)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희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렀고,

우리는 여전히 교만했으며, 또한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무관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탄식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32, 마 38, 시 51:4, 시 51:1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한글개역 막 9:7)

“Then a cloud appeared and enveloped them, and a voice came from the cloud: ‘This is my Son, whom I love. Listen to Him’ ” (NIV Mark 9: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2/14 (주일)	2/15 (월)	2/16 (화)	2/17 (수)	2/18 (목)	2/19 (금)	2/20 (토)
	창47	창48	창49	창50	출1	출2	출3
본문	눅1:1-38	눅1:39-80	눅2	눅3	눅4	눅5	눅6
	욥13	욥14	욥15	욥16,17	욥18	욥19	욥20
	고전1	고전2	고전3	고전4	고전5	고전6	고전7

재/의/수/요/일/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재의수요일 찬양집회 (2/17 오후7:30)	“헛되이 받지 않는 은혜” (고후5:20-6:10)
토요 새벽기도회 (2/20 오전6:30)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시26:1-12)

지난 주일(2/7)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13) – 정결함으로” (눅 5:12-16)

“예수께서 한 동네에 게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눅5:12) 오늘 본문은 한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환자는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깨끗하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카타리조)는 (단자) “병을 고쳐달라”는 의미 보다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달라”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하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증 나병환자는 (놀랍게도)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고,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즉, 그는 나병환자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임을 인식했기에, 예수님께 죄사함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손을 내밀어, 이 나병환자를 만져 주셨고, 그 즉시 이 사람은 영적인 회복 뿐 아니라, 육신적인 회복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에게, 1)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2) 제사장에게 그의 몸을 보이며, 율법에 규정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동기가 어떠하며?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회복되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회복되어야 함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해야 하겠습니까.

설/교/ 메/모